



임실군이 대표 브랜드인 치즈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실N치즈 50년사'를 집대성한다.

임실N치즈 50년사 집대성

군, 산재된 오래된 장비·치즈 생산장비·유물·영상 등 기록물 수집

임실군이 대표 브랜드인 치즈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실N치즈 50년사'를 집대성한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오는 5월 30일 까지 관내에 산재된 오래된 장비와 치즈 및 유제품 생산장비와 같은 유물과 사진과 치즈서적, 영상 등 각종 기록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수집된 유물들은 임실군이 현재 추진 중인 치즈역사문화공간 사업에 활용된다.

치즈역사문화공간사업은 지정환 신부가 지난 1966년 임실을 섬기기에 세운 치즈공장을 복원하는 것으로, 내부는 전시관으로 꾸며진다.

전시관은 임실치즈의 지나온 발자취와 성장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임실치즈의 역사적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수집된 유물과 기록물은 치즈역사문화공간에 우선 전시된다.

원활한 유물수집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상기증이 원칙이지만, 기증자에 대해서는 기증증서와 기증자 명패를 설치하고 임실N치즈축제 등 치즈관련 각종 행사에 초청할 계획이다.

군은 치즈역사문화공간을 새로운 관광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연중 시설운영을 통해 치즈테마파크와 연계된 관광명소를 만들어 국내 치즈산업의 메카로서의 임실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는 5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임실군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치즈역사문화공간사업은 임실치즈가 걸어온 50년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정환 신부는 1964년 임실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해 가난한 임실지역에 협동정신과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신앙을 보급해 신앙유를 생산, 치즈개발을 이끌어 냈다.

임실을 섬기기에 한국 최초의 치즈공장을 설립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치즈인 까망베르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생산에 성공하는 등 전국유일의 치즈협업인임실치즈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정책 포럼 진행

젊은 귀농귀촌인 유입 등 논의

순창군이 젊은 귀농인 유치로 귀농 유입 패러다임을 바꿔 활력이 넘치는 지역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포럼'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군의 귀농귀촌 관계자 뿐 아니라 귀농인 100여명이 대거 참여해 귀농인의 입장에서 군의 지속가능한 귀농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평가와 전략, 귀농귀촌센터 성과와 역할, 젊은 귀농귀

촌인 유입정책, 귀농귀촌과 마을 활력 선진사례를 주제로 살인환 친환경 농업과장, 이수형 순창귀농귀촌지원센터장 등 지역 인사는 물론 바깥의 화천귀농학교장, 조원희 상주귀농지원센터장, 금창영 흥천귀농지원연구회장, 이근석 완주공동체지원센터장 등 외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사는 젊은 귀농귀촌인 유입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귀농 정책이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은퇴 농보다는 청년 귀농인들의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순창은 청년 귀농인 유입이 늘어난 만큼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청년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살인환 친환경농업 과장은 군의 "귀농정책을 관심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단계별로 나눠 시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와 기구 등 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귀농인 유치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체육회, 생활체육부문 장려상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명예 드높이는 계기 될 듯

남원시체육회가 서울 올림픽과 크림 올림픽에서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제63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생활체육부문 기관단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63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의 체육을 빛낸 체육인들을 격려하며 축하하는 자리로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학교체육, 공로, 연구 부분의 총 7개 부문에서 134명, 8팀, 1기관(남원시체육회)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남원시 체육회의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부문 장려상 수상의 쾌거는 체육회 임·직원과 주관부서 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로 남원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남원체육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해 남원시와 남원시체육회는 거점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선정(3년간 국비24억원 확보),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물리경기대회, 아시아게이트볼 대회 등의 각종 국제 및 전국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하였으며 각종 전지훈련의 유치를 통하여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이용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전북도내 전주, 남원에 운영 중인 체력인증센터는 2014년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해마다 4천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시민 체력향상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신규 소방화차차 배차

남원소방서(서장 이홍재)는 고성능 신규 소방화차를 식경119안전센터에 배치하여 화재대응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소방화차는 유류, 가스 등 특수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폼약제 등 특수소화약제와 분사장치를 탑재·장착한 차량으로 광치농공단지·노암농공단지·순창가남농공단지 등 공장 및 화물물집 취급소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소방력이 한층 더 보강됐다.

특히, 국민안전처 소방자동차 색채 디자인 표준 도색 지침에 따라 약천후나 야간 운행 시 안전 확보가 용이하고 가시거리가 긴 황색으로 도색되어 눈길을 끈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배치된 소방화차량은 대량유류 취급 장소 등의 특수 화재나 대형화재 진압에 우수한 성능을 지닌 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119안전센터와 구립119지역대 두 곳에도 최신 기술이 적용된 소방 펌프차량이 신규로 배치되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추진

임실군은 농민이 웃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동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사태도 늘고 있어 농가소득 보전에 나선다.

관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 5일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현지 조사를 통해 계산된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한다.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전체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농의 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127농가가 소득보전을 신청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환경관리팀(☎640-235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바이오연구소-농생명연구원-고려식품 업무협약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과 고려자연식품 주식회사와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3시간 R&BD(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3일 문규환 연구소장,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이동희 고려자연식품 부사장 등 각 기관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2층 세미나실에서 이뤄졌다.

세 기관은 국내·외 식품산업 정보

공유, 지역 농식품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공동 개발, 각종 지원사업 신청 업무 협조, 연구·생산 장비 공동 활용 및 위탁생산 지원, 국내외 유통, 홍보, 마케팅 등 판매활동 공동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베리류 등 지역 농식품 특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공동개발 및 생산, 국내외 판매를 상호 협력하여 전북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